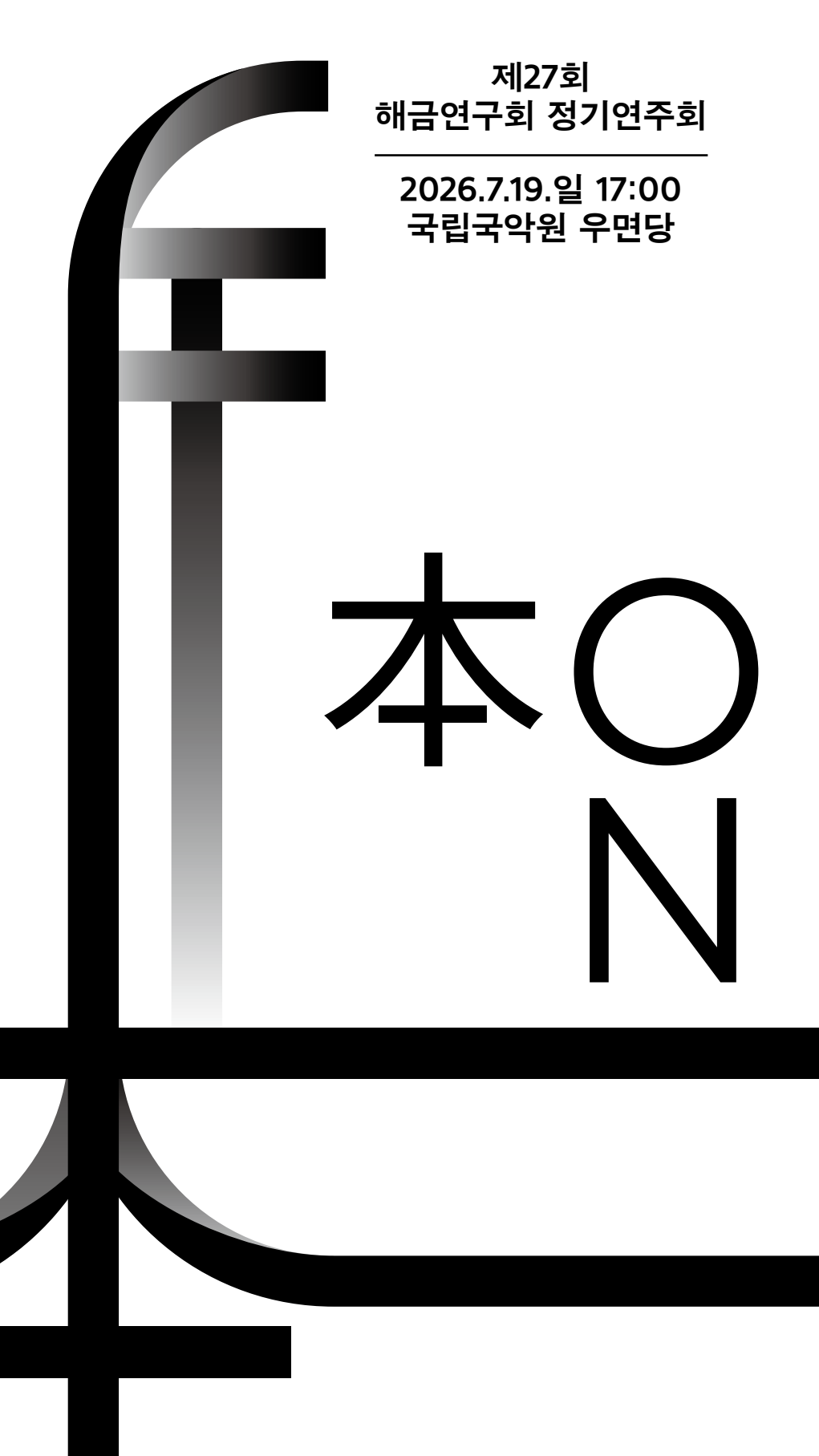




제27회
해금연구회 정기연주회

2026.7.19.일 17:00
국립국악원 우면당

本 O
N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해금연구회 2026 프로젝트 〈本 ON〉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음악을 전승해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단지 오래된 것을 보존하는 일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감각과 질문,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 다시 연결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비로소 현재의 울림이 됩니다.

이번 공연은 **보잉 온(Bowing On)**과 **근본이즘**이라는 두 개의 흐름에서 출발했습니다. 활의 움직임처럼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해금이라는 악기가 지닌 가장 본질적인 떨림을 다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위로를 넘어,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드는 음악. 한 존재가 어떻게 머무르고 살아가는지를 들려주는 음악. 그러한 울림을 이번 무대에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통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며 이어지는 감각이라고 믿습니다. '근본이즘'은 전통을 지키는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왜 지금도 전통이 살아 움직이는지를 소리로 증명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무대 역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본질의 울림을 오늘의 언어로 연결하려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주신 해금연구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공연을 위해 곡을 써주신 코드 마이어링(Cord Meijering) 작곡가님, 신윤수 작곡가님, 이번 무대에 함께 해주신 송경근, 강선일, 서수복 선생님과 한진규, 추현탁, 임도경 선생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찾아주시고 함께 울림을 나눠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本 ON〉 *Bowing On:* *The Root Resonates* 활은 멈추지 않는다. 전통은 계속 진동한다.

해금연구회 2026 프로젝트 〈本 ON〉은 전통의 형태를 답습하는 공연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래된 음악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 있는 본질적 진동이다. 'Bowing On'은 활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 현 위를 지나가는 한 번의 마찰은 단순한 연주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호흡, 감각과 기억을 이어가는 운동이다. '근본이즘'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감각 안에서 지금의 울림을 발견하려는 태도이며, 전통을 현재형으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질문이다. 이번 공연은 해금이라는 악기가 지닌 원초적 떨림과 동시대적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한다. 이어짐과 흔들림, 생성과 잔향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전통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현재가 되는가.

프로그램

1

정악합주
평조회상 中 상령산

2

산조합주
한범수류 해금산조

3

해금독주곡
해금 주자를 위한
The Wings, 고요한 날개
작곡 | 신윤수 독주 | 왕정은

위촉초연

4

공동창작
Bowing On
구성 | 강은일

5

해금협주곡
수평선 앞에서
작곡 | Cord Meijering(코드 마이어링)
협연 | 박솔지

위촉초연

6

해금합주곡
현을 위한 민요유람
작곡 | 강준일

평조회상 中 상령산

해금	김현희* 허윤재 성연영 박수아 양희주 정재연 김영은 편예린 서혜리 김지윤
중음해금	문선경
저음해금	장민영
도자기 편경	강선일 한진구
훈	송경근
가야금	임도경

〈상령산〉은 한국 전통 정악의 뿌리이자, 가장 느린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근원의 음(Root)’이다. 전통적인 상령산이 한 호흡을 길게 늘어뜨리며 여백의 미를 극대화했다면, 이번 무대에서의 상령산은 그 오래된 시간의 축을 현대적인 시선과 아주 특별한 악기 편성으로 재구성한다.

흙으로 빚은 훈의 원초적인 태초의 바람소리 사이로, 도경이 지닌 차갑고도 영롱한 돌의 성음이 점을 찍듯 시공간을 연다. 해금과 가야금 명주실의 대비되는 잔향으로 마찰과 떨림의 궤적을 그리며 앙상블을 촘촘히 채워 나간다.

이 다채롭고 신비로운 음향의 중심에서 중음해금은 낮고 묵직한 베이스 선율로 대지의 중심을 잡듯 음악을 깊이 있게 지탱한다. 중음해금의 깊은 울림은 훈과 도경, 해금과 가야금이라는 각기 다른 자연의 원소들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묶어내는 중력의 역할을 한다.

옛 음악의 외형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악기들이 지닌 가장 원초적인 ‘본질의 진동’을 오늘날의 감각으로 직조해내는 무대. 관객은 고정된 박자를 넘어 시공간이 확장되는 듯한 신비로운 명상적 사운드 속에서, 상령산이 가진 영원한 현재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범수류 해금산조

해금	김성아* 안은경 김준희 노은아 이태경 이휘정 김민정 고요한 이샘결 심인아 박혜원 송현수 박은서 최세영 유혜빈 우민정 이선민
장구	서수복

국악의 꽃이라 불리는 산조는 흐트러진 가락을 연주자의 깊은 기량으로 엮어내는 극적인 음악이다. 특히 〈한범수류 해금산조〉는 해금 특유의 중후하면서도 애절한 성음, 그리고 정교한 시김새가 돋보이는 전통 산조의 수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진양조에서 자진모리로 이어지는 산조의 전통적 틀을 유지하며 ‘울림(Resonance)’의 방식으로 확장한다. 독주 악기로서의 해금이 가진 에너지를 다채로운 음색이 함께 모여, 산조가 지닌 한(恨)과 흥(興)의 감정을 입체적으로 증폭시킨다. 과거의 박제된 산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연주자의 호흡과 관객의 심박수가 함께 뛰는 가장 뜨거운 동시대적 진동을 증명해 보인다.

해금 주자를 위한 The Wings, 고요한 날개

작곡 신윤수 위촉초연
독주 왕정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결과는 만들어지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틀 위에서 모순 없는 결론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그 흐름은 끝내 고요에 머물지 못한 채 이어진다.

“멈추지 않는 흐름이 있다.”

흔들리고, 꺾이며, 어딘가에 닿지 못하더라도 다시 차오르며 계속해서 움직인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날지 못하더라도 그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거칠고 화려해 보이는 고요에 이르지 못한 움직임이었지만, 감각은 오히려 그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며 은은하게 빛난다. 고요는 도달되는 상태가 아니라, 끝없이 향해 가는 하나의 방향이다.

“완전한 상태는 없다.”

차이는 드러나고, 충돌은 반복되며,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 이상과 현실이 맞닿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괴리감은 존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존재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아직 어떤 것과도 닿지 못하고, 무엇에도 기대지 않은 하나의 존재가 홀로 서 있는 상태.

해금 주자를 위한 〈The Wings, 고요한 날개〉는 음악을 하는 삶에서 비롯된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구상한 작품이다. 그 삶에서 비롯된 감각과 움직임을 통해 존재의 근본을 드러내고자 한다.

Bowing On

구성 강은일
해금 강은일 김보미 강지은 조혜령 김예지
임선희 김지은 배나연 이유정

하모니움 최민지
디저리두 송경근
양금 한진구
타악 강선일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 동안 쉬게 되는 숨의 횟수는 약 백만 번에 이른다고 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당연하고도 경이로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Bowing On〉은 해금의 활을 밀고 당기는 행위를 바로 이 백만 번의 숨과 연결 짓는 무대이다. 활이 현 위를 지나가는 한 번의 마찰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을 거쳐 간 무수한 연주자들의 삶과 호흡,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숨결이 겹쳐지는 생명의 운동이다.

들숨과 날숨이 멈추는 순간 생이 다하듯, 해금의 활긋기 역시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시간과 기억을 연장한다. 악보도, 경계도 없는 즉흥의 공간 속에서 동서양의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은 오직 해금의 떨림에 기대어 서로의 숨을 나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 아련하게 잦아드는 숨, 그리고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숨들이 활대를 타고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관객은 이 멈추지 않는 소리의 호흡 속에서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 숨 쉬고 있구나'하는 깊은 존재의 자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통이라는 오래된 생명이 어떻게 오늘의 숨을 쉬며 미래로 진동하는지, 그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호흡해주기 바란다.

수평선 앞에서

해금독주, 해금 오케스트라, 가야금, 장구와 오션 드럼을 위한 작품

작곡	Cord Meijering(코드 마이어링)	위촉초연
협연	박솔지	
해금	김유진* 김지현 노다은 이유한 이강산B 장은혜 강서연 정예림 황연정 최우정 정시은 조성윤 이다은	
중음해금	박채린 전수민 박효린 박해인	
저음해금	장서영 이주현	
장구	서수복	
가야금	추현탁	

〈수평선 앞에서〉는 작곡가가 어린 시절의 첫 아홉 해를 보낸 동프리슬란트의 북해 섬 슈피커오크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다. 그곳은 자동차가 없는 섬이었고, 어린 작곡가에게 세계는 좁은 의미의 음악보다 먼저 하나의 소리로 다가왔다. 바람, 비, 폭풍, 밀려오는 파도, 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말발굽 소리, 그리고 피부 위를 스쳐 가는 모래. 이 어린 시절의 소리 풍경은 작곡가에게 그 어떤 음악적 전통보다도 깊은 것이 되었다.

이 작품에서 그 기억은 단순한 자연 묘사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면의 풍경으로 되돌아온다. 여기서 해금은 갈매기의 목소리이자 바람의 목소리이며, 동시에 내면의 목소리이다. 바람은 공기를 움직이고, 해금은 그 공기가 다시 노래하게 한다. 독주 해금은 기억의 한 목소리처럼 수평선 앞에 서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열아홉 대의 해금은 하나의 거대한 숨 쉬는 장을 이룬다. 수많은 갈매기, 수많은 바람의 선, 하나의 움직이는 공기 안에 겹쳐진 여러 층들이다. 장구와 오션 드럼은 이 장에 몸, 맥박, 그리고 바다의 깊이를 부여한다.

작품의 형식은 황금분할의 비례와 한국 진양조의 크고 넓은 시간적 호흡을 결합한다. 두 질서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서로 겹쳐지며, 그로 인해 가벼운 비대칭이 생겨난다. 그렇게 수평선, 파도의 움직임, 높은 하늘, 기억과 내면의 시간이 어우러진 바다의 음악적 기하학이 형성된다. 〈수평선 앞에서〉는 바다에 관한 작품이지만, 동시에 그 바다 앞에서 자기 안의 소리를 만나는 인간에 관한 작품이다.

현을 위한 민요유람

작곡	강준일
해금 1파트	김경흔* 김소희 원유빈 김남희 박주현 이지인 김현서 석지영 이예은 이나현 이은지
해금 2파트	김기완* 팍소리 정수아 임다희 김다현 석연수 오혜원 노유진 김무경 송지원
저음해금	이강산A* 문새한별
가야금	임도경 추현탁

지금 전통음악은 기악으로 탈바꿈하는 전기를 맞고 있으며, 우리 옛 민요 역시 전처럼 함께 부르고 즐기기보다는 연주를 듣고 감상하는 단계로 변하고 있다. 기악음악은 표현의 폭이 넓고 섬세하여 세련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노래처럼 친근하게 되려면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민요를 익히면서 기량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악양식의 민요편곡을 시도해보았다. 노래구성은 경북궁타령, 이야흥타령, 강원도 아리랑, 어랑타령, 몽금포 타령, 강강술래의 모두 여섯 곡으로 이루어졌다.

- 작곡가 강준일 -

말(가사)은 구체적이지만, 때로는 영혼의 거대한 깊이를 담아내기 좀을 때가 있다. 기악으로 탈바꿈한 민요는 순수한 음색과 선율로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 〈민요유람〉은 전통 선율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선조들의 영혼을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한 곡이다. 이번 무대는 연주자와 감상자의 영혼이 음악을 통해 깊이 교감하는 순간이길 바란다.

작곡

독주 및 협연, 사회



작곡
Chord Meijering

- 네덜란드 작곡가. 1955년 독일 에겐 출생
- 슈트트가르트, 함바흐 등 작곡 콩쿠르 수상 및 입상
- 2005년-2021년 다름슈타트 아카데미 포어 톤쿤스트 디렉터 역임
- 현) 다름슈타트 아카데미 포어 톤쿤스트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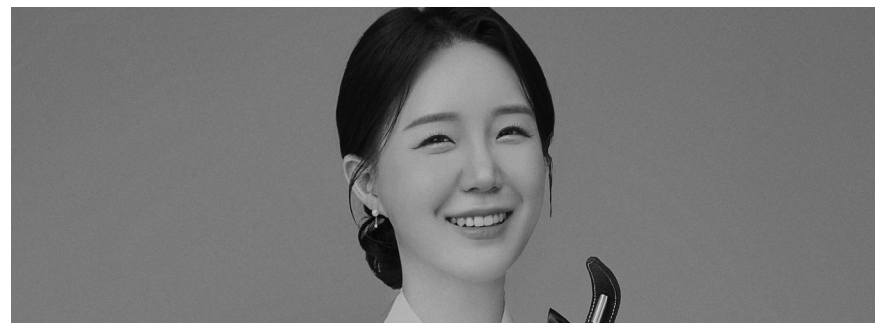
작곡
신윤수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B.M.) 및 석사(M.M.)
- 한양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국악작곡전공 박사(Ph.D.)
- 제36회 대한민국작곡상 수상(2017)
- 현)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독주
왕정은

- 서울대학교 음악박사(D.M.A.)
-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이수자
- 제102회 경기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명인을 꿈꾸다」 협연



협연
박솔지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 전문가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박사과정 수료
- 제32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사회
김보미

- 서울시무형유산 제44호 삼현육각 이수자
- 밴드 잠비나이 멤버
- 국악방송 '맛있는 라디오'진행

객원

훈, 디저리두
송경근

- 월드뮤직그룹 공명 동인
- 송훈, 도경 악기 창작
- 2025 KBS 관악부문 국악대상

도자기 편경, 율기
강선일

-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졸업
- 월드뮤직그룹 공명 동인
- 앙상블시나위 동인

타악
서수복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정음회 대표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

도자기 편경, 양금
한진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국악작곡)
 - 대표작 <제망모가> - 2019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

가야금
임도경

- 서울대학교 졸업 및 박사 과정 재학
- 제34회 KBS 국악대경연 대상 수상
- <다시, 젊은 산조> 1집, <임도경의 윤희석제 가야금산조> 등 발매

가야금
추현탁

- 서울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해금연구회

해금연구회는 해금 예술의 미래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제시해 온 전문 단체로, 현재 약 450여명의 해금전공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992년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전통 해금 레퍼토리뿐 아니라 다양한 창작 작품을 발표해왔습니다. 또한 해금 창작곡의 위촉과 신진 연주자 발굴, 실험적 음악 시도 등을 통해 해금 음악의 저변 확대와 예술적 다양성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고문

상임고문 강사준
고문 강덕원 김기동 송권준 심인택
 안희봉 양경숙 이기설 정수년 주영위

임원

회장	강은일
부회장	김성아 노은아 류정연
감사	안은경

이사

강호진 고수영 고은현 금재현 권미소 권민형 길미애 김미라
김미숙 김선일 김선임 김소윤 김승정 김은진 김주남 김주리
김주형 김준희A 김한승 김혜영 류은정 명서연 모선미 박거현
박경숙 박신정 박정호 박정희 박혜진 박병원 방승환 변종혁
사주현 사현욱 서영민 서은영 성의신 신상철 안재숙 양제진
여창선 오정무 옴은정 우종양 윤문숙 윤해승 윤희정 이경주A
이수진 이윤경 이은혜 이정민 이주영B 이창신 이혜영 인영자
장수진 장윤미 장인경 정길순 정수경 정은경 정은주 조주희
주경수 주정민 최윤정 최희연 홍기정 황수진 황애자 황영자

운영진

운영위원장	김혜빈
운영위원	강지은 김경흔 김현희 허윤재
총무	양희진 정연주
간사	홍성하

해금연구회

회원

강민승 강민정 강서연 강솔 강현지 고미주 고미혜 고서영 고수정
 고예슬 고요한 고운설 고주희 고진명 고현서 곽소리 곽유민
 구민정 국은예 권새별 권성은 김경민 김고은 김기완 김나래
 김나영A 김나영B 김남령 김남희 김다현 김리현 김명우 김미루
 김미영 김민경 김민정A 김민정B 김민정C 김민정D 김민희 김보슬
 김서하 김선미A 김선미B 김선영 김선행 김세희 김소현 김소희
 김솔잎 김수민 김수연A 김수연B 김승연 김신영 김영은 김예소리
 김예인 김예지 김용하 김원지 김유나 김유정 김유진A 김유진B
 김윤주 김윤지 김은영 김은이 김은혜 김준희B 김지현 김지희
 김지혜 김찬미 김찬정 김태영 김현서 김혜민 김효경 김효영
 김효정 김희수 김희주 김희진A 김희진B
 남미선 남여명 노다은 노링 노민지 노예리 노지연
 단윤주
 류가희 류도인
 문빈 문새한별 문선경 민경주 민경하 민다솜 민성원
 박가은 박고운 박규담 박남현 박모정 박미경 박민경 박성욱
 박세은 박소민 박소연 박소영 박소현A 박소현B 박솔지 박수민
 박수아 박시현 박여선 박연지 박원주 박유진 박윤경 박은경A
 박은경B 박은서 박은희 박자영 박주만 박주현 박지연 박채린
 박형천 박혜연 박혜원 반은진 배고운 배나연 배우리 백민경
 백지혜 변주현
 서상협 서수정 서윤경 서하리 석연수 선지우 성연영 손지원
 손혜진 송영선 송지원 송현수 신수아 신숙경 신주민 심수아
 심인아 심재린
 안진성 안해림 안혜인 안혜진 양보라 양서라 양윤서 양지연
 양희주 여수연 오나라 오미진 오민정 오선화 오승용 오은서
 오한선 오혜원 옥구슬 왕정은 우상은 원나경 원유빈 원혜연
 유나을 유명조 유선경 유수민 유명효 유지선 유하은 유현경
 유혜빈 윤양정 윤하림 윤혜지 윤향희 이강산 이강산B 이경은A
 이경은B 이경주B 이고은 이귀영 이글샘 이나현 이다윤 이동은
 이리비 이보람 이보연 이상윤 이상은 이서윤 이선아 이선영
 이세미 이소라 이소연 이소영 이수민 이수옥 이슬기 이승은
 이승현 이승희 이시은 이아름 이연재 이연정 이예연 이예은
 이예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주연 이주영A 이주하 이준영 이지윤 이지현 이진경 이찬미

해금연구회

이채경 이채원 이채윤 이채은 이채현 이태경 이태은 이하영
 이한솔 이현신 이현지 이혜송 이휘정 이희운 인이주 인지영
 임가은 임다희 임선희 임유리 임정진 임현경 임혜란
 장문정 장민영 장서영 장예리 장예슬 장예진 장윤희 장윤정
 장은혜 장지수 장지연 장효진 전다혜 전선희 전수민 전은혜
 전지원 정겨운 정다연 정세희 정소레 정수아A 정연수 정영은
 정예림 정은별 정은영 정인경 정재연 정지연 정지은 정진의
 정현지 정혜원 정희경 정우케 조아란 조영이 조윤경 조은진
 조은혜 조한결 조현아 조형주 조혜령 조문순 조위현 주선희
 주철환 진선화
 차다솔 차선우 채수련 천지윤 최남영 최랑희 최선영 최세영
 최수영 최수진 최승은 최영진 최유리A 최유리B 최윤희 최은지
 최정윤 최화음 추연지
 편예린
 하예원 한갑수 한다혜 한민지 한서희 한수지 한지연 한진수
 한현정 허성애 홍다솔 홍상이 홍정희 홍효정 황보영 황성숙
 황연정 황유선 황한나 황혜진

신입회원

김무경 김보미 김지윤 김지은 박배화 박해인 박효린 서혜리
 석지영 송지원 오혜원 우민정 유광민 이다은 이샘결 이선민
 이예은 이윤희 이은지 이주현 이지인 정수아B 정시은 조성윤
 최민지 최우정



제작진

주최·주관
악기협찬

후원

티켓

문의

해금연구회
청로국악기
해금연구소 무궁
난계국악기
(주)원더 프테로신 
전석 2만원
학생 1만원
010-9820-2990

무대감독
음향감독
사진 및 영상
홍보물 디자인

유호철
박재현
한다빈
한윤지

해금연구회

〈오시는 길〉

국립국악원 우면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